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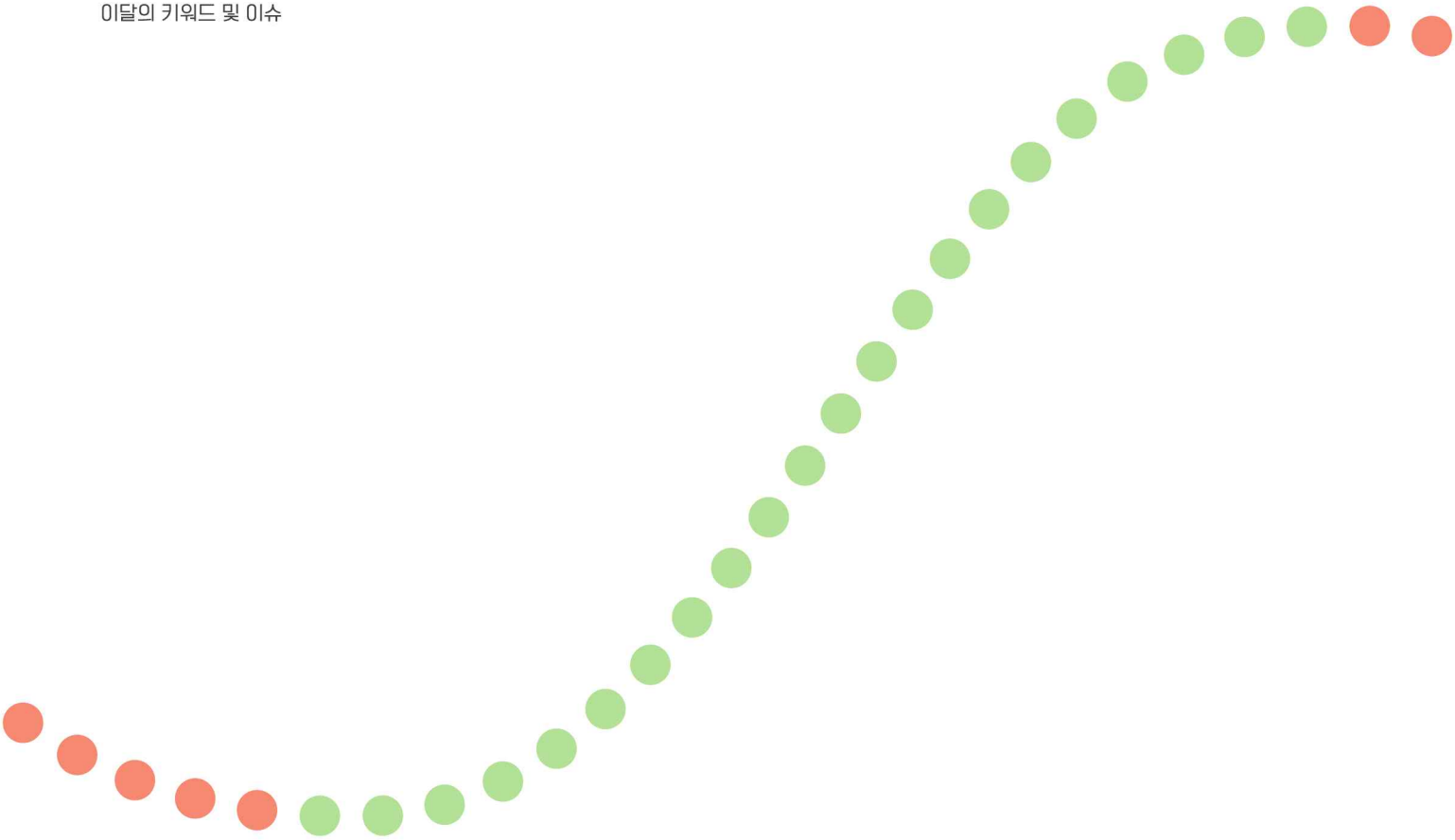
2023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GDI 경북연구원

01

2023

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13
2. 생산 15
3. 소비 18
4. 투자 20
5. 건설 21
6. 교역 23
7. 고용 24
8. 물가 27
9. 금융 28
10. 부동산 30
11. 중소기업 33

BIG DATA 34

1. 이달의 키워드 34
2. 이달의 이슈 37

개관 경북 경제동향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2.11
	BSI	23.01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2.12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2.12
	신용카드사용액	22.10
투 자	자본재수입액	22.12
건 설	건축허가면적	22.12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2.12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2.12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3.01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2.11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2.12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2.12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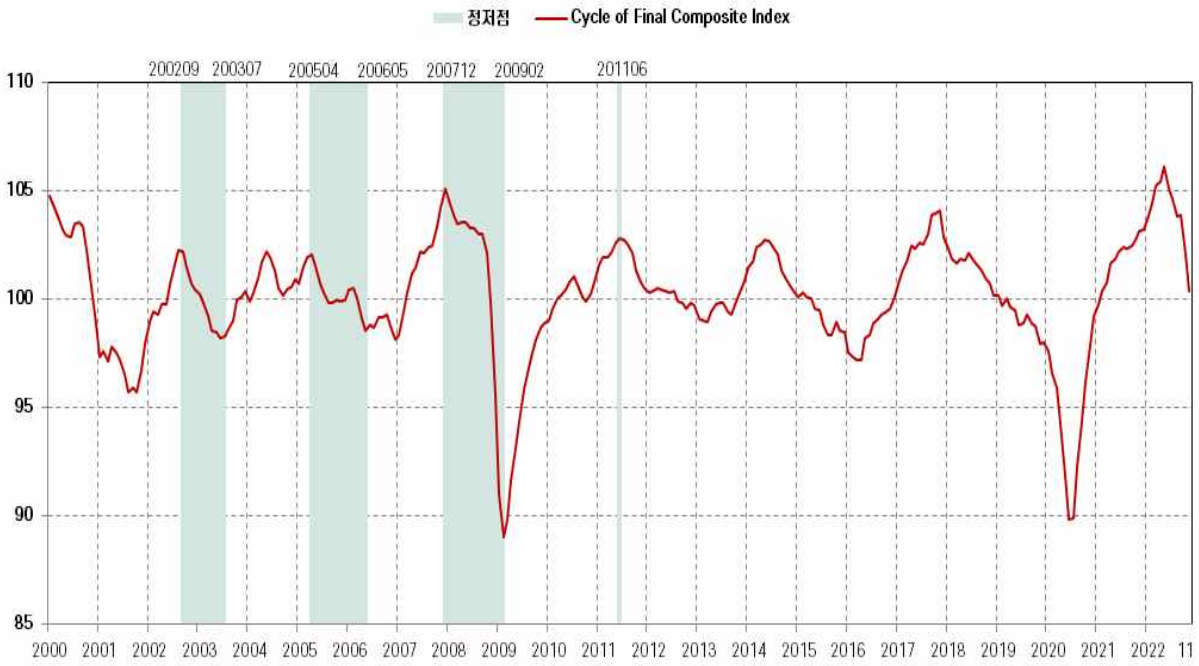
총괄

경북 경제동향

경 기	•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 수출입금액 감소 지속, 내수시장의 소비심리 위축과 비상근근로자 취업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업황 부진으로 경북 동행종합지수 하락세 지속
생 산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업종은 증가했지만 전자부품, 1차금속,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
소 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와 연말 소비 기대 요인에도 전년동월대비 하락
투 자	• 자본재수입은 전기·전자기기의 수입은 증가, 기계류와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 자본재 수입은 감소
건 설	• 건설수주액은 신규주택, 공장·창고, 기계설치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교 역	• 12월 수출액 및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고 용	• 취업자수는 농림어업(2만 3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6천 명)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2만 4천 명)에서 급감 • 자영업자 상승세 소폭 둔화, 임금근로자 둔화세 진입
물 가	•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7월 정점을 찍은 후 12월까지 하향세를 기록했지만 연초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 • 전년대비 도시가스(34.7%), 전기료(29.5%), 부탄가스(14.1%) 등 에너지 요금 상승
금 융	• 가계대출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액은 상승
부 동 산	• 아파트매매가격은 안동(1.6%)의 경우 상승, 경산(−5.8%), 구미(−5.5%), 포항(−3.1%)은 하락, 주택매매거래량 전년동월대비 하락, 미분양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중소기업	• 어음부도율과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순환변동치 경제지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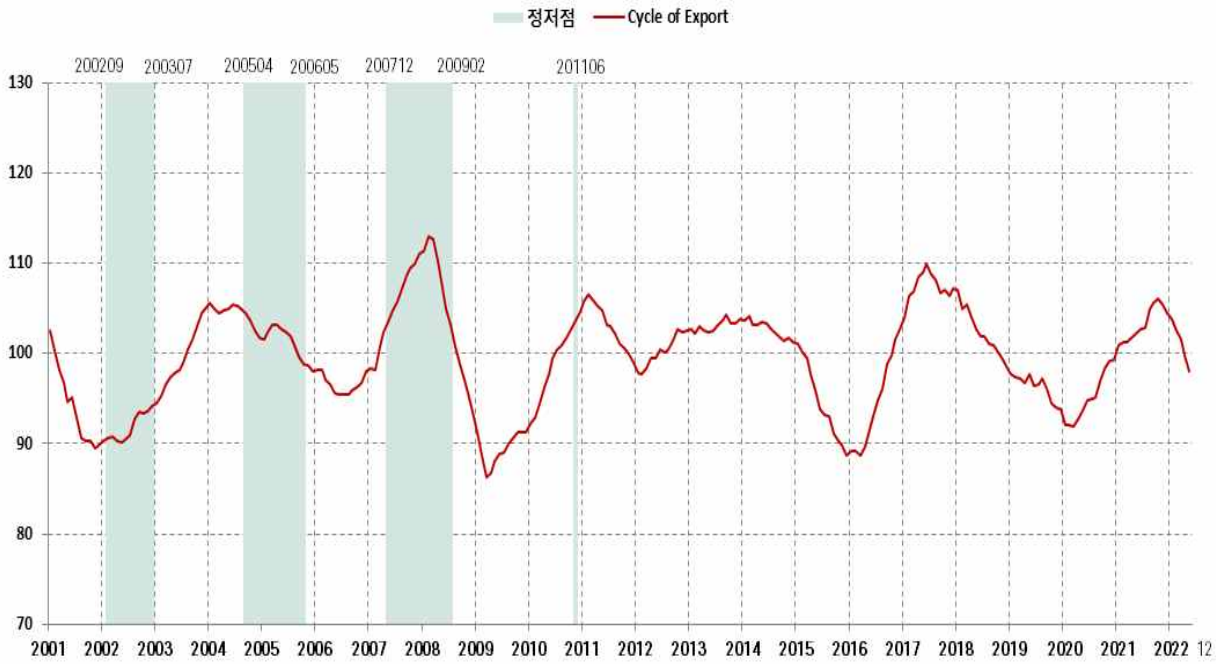
경북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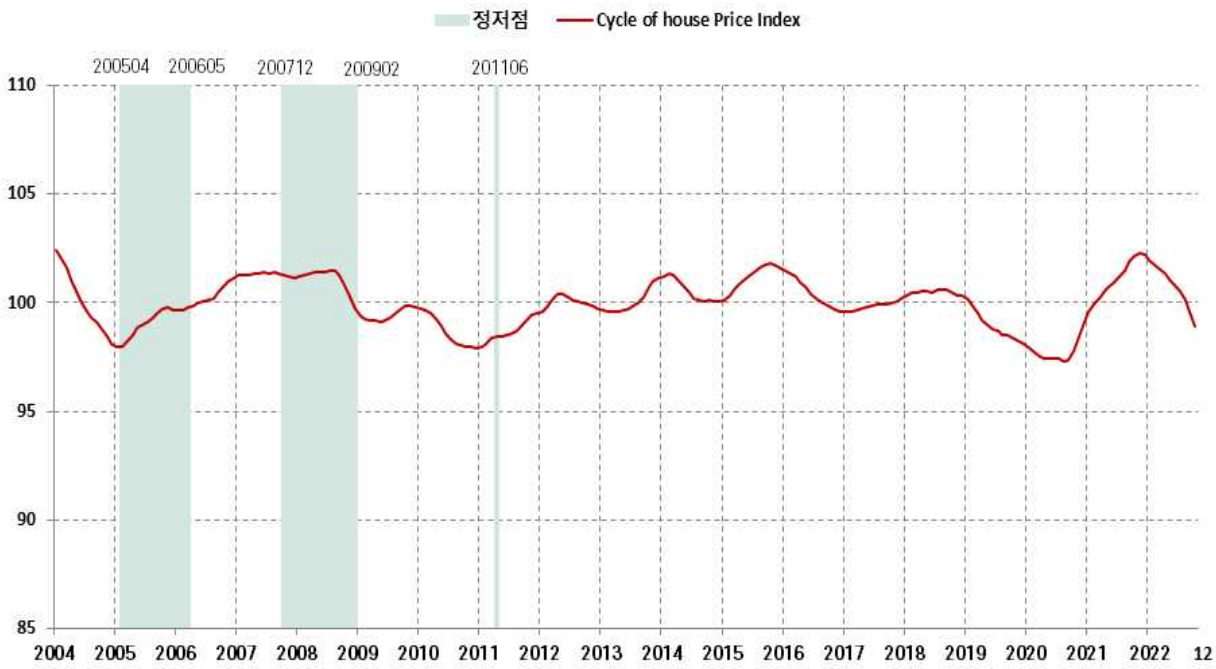
제조업생산지수



수출액



주택매매가격지수



Infographics

경기

전월대비 증감

경기종합지수(11월)

동행종합지수 96.6 — 1.7% ↓ — 1.7p ↓ — 순환변동치 100.4

기업경기실사지수(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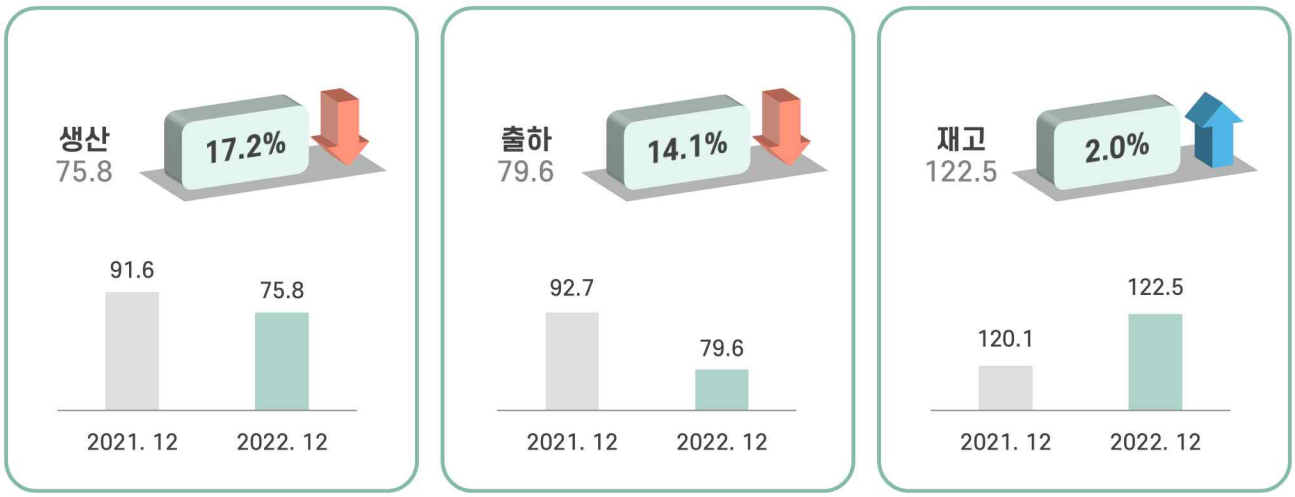
제조업 57 — 0p — 5p ↑ — 비제조업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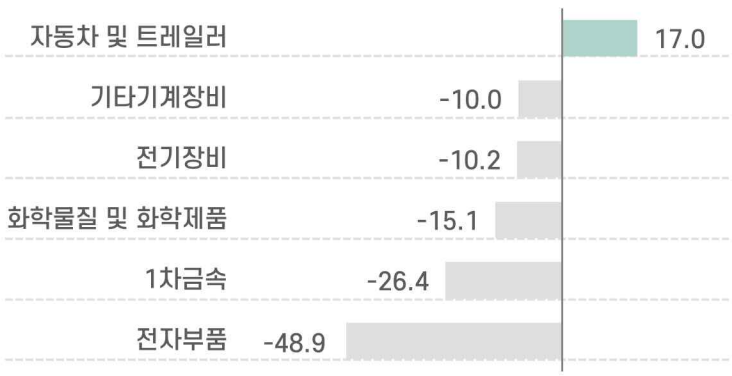
중소기업 가동률(12월) 73.9%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감

광공업생산지수(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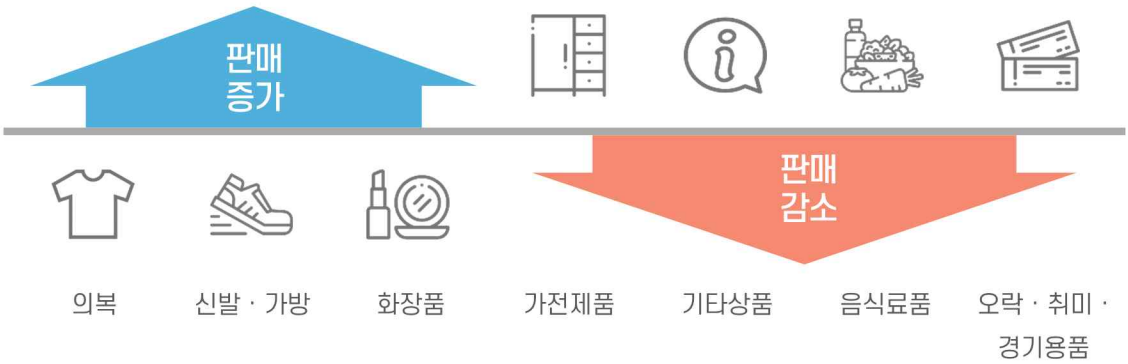


주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2. 이미지출처 : FLAT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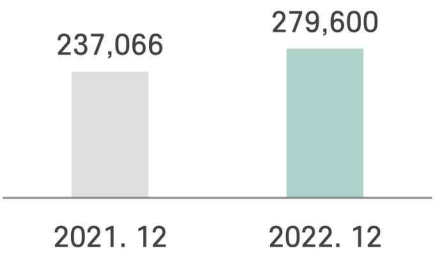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2월)	신용카드사용액(10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12월)
81.2	1조 3,294억 원	6,037대
3.8% ▼	13.2% ▲	8.2% ▲



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본재수입액(12월)

2억 7,960만 달러

17.9% ▲

건설

전년동월대비 증감

건축물허가면적(12월)	건축물착공면적(12월)	건설수주액(12월)
1,062,920㎡	264,052㎡	1조 3,960억 원
17.0% ▲	79.7% ▼	11.9% ▲

교역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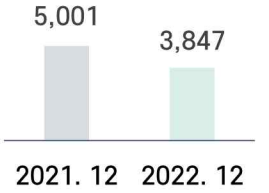
수출입동향(12월)

수출액
38.47억 달러

11.6%

28.8%

수입액
14.52억 달러



무역수지
23.95억불
흑자



철강판	14.4%	▲
무선통신기기	47.4%	▼
정밀화학원료	160.8%	▲

정밀화학원료	88.0%	▲
석탄	38.3%	▼
철광	61.3%	▼

고용

전년동월대비 증감

고용동향(12월)

15세 이상 인구
232만 5천 명
1만 5천 명 ▲

경제활동인구
146만 9천 명
3만 1천 명 ▲

- **취업자** 141만 6천 명 / 3만 1천 명 ▲ — **고용률** 60.9% / 0.4%p ▲
- **실업자** 5만 3천 명 / 1만 3천 명 ▲ — **실업률** 3.6% / 0.8%p ▲

비경제활동인구
85만 6천 명
1만 6천 명 ▼

실업급여자수 25,013명

- **임금근로자수** 89만 9천 명 / 6천 명 ▲
- **자영업자수** 42만 명 / 1만 8천 명 ▲

OPEN

물가

전년동월대비 증감

소비자물가조사(1월)

소비자물가지수
110.91

5.4%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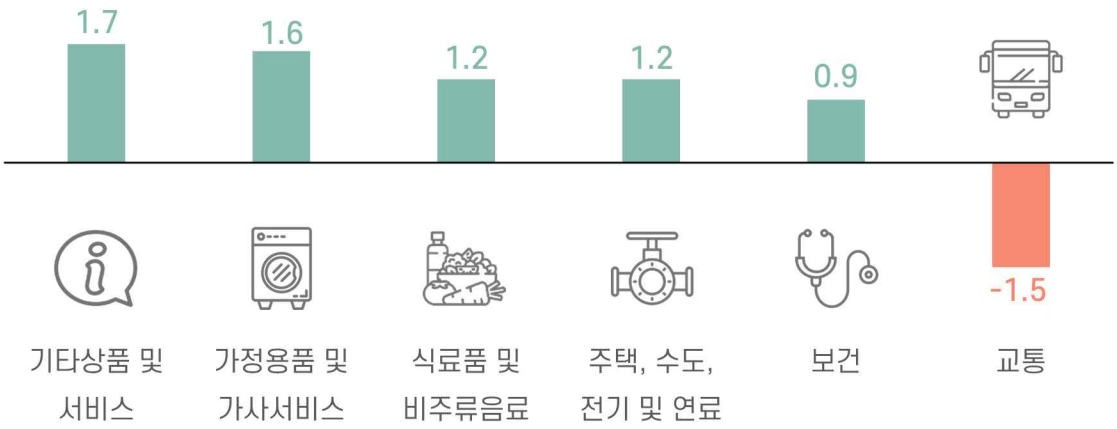
생활물가지수
112.20

식료품및 에너지제외지수
107.34

4.1%

1.3%p

기대 인플레이션율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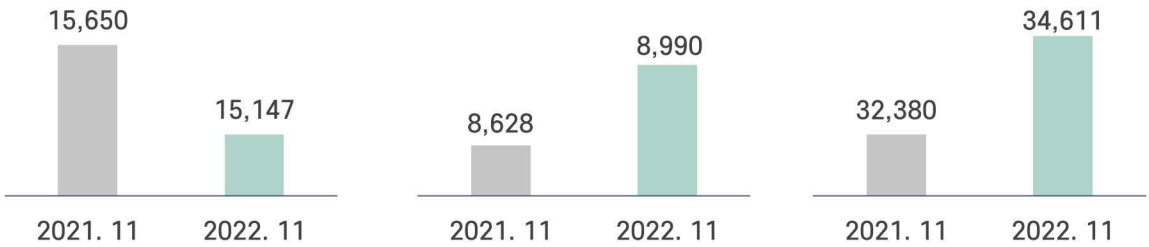


금융

총 50조 원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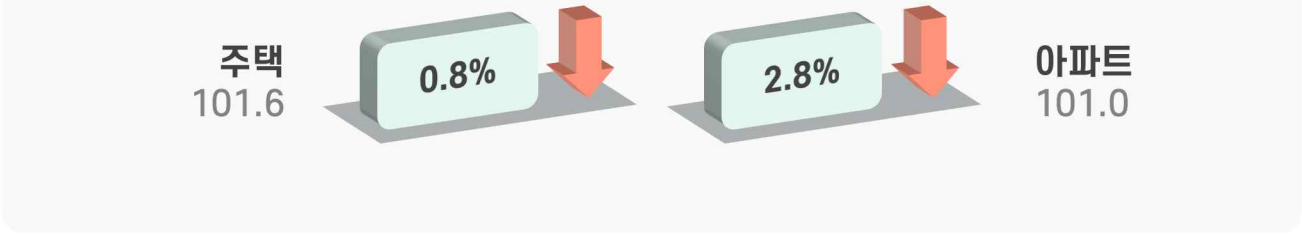
가계대출액(11월)	주택담보대출액(11월)	기업대출액(11월)
15조 1,470억 원	8조 9,900억 원	34조 6,110억 원
3.2% ▼	4.2% ▲	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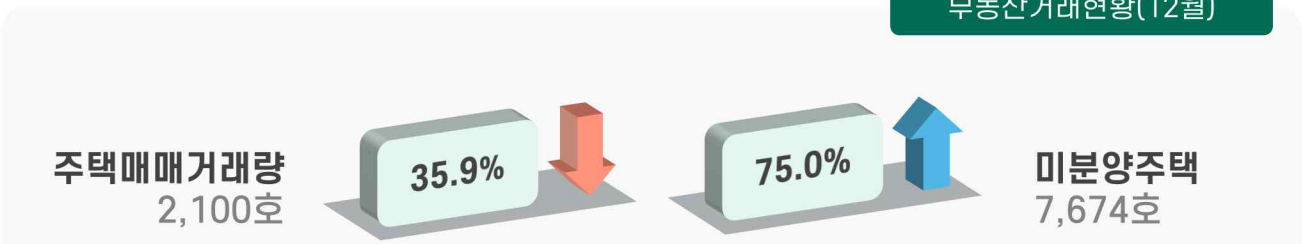
부동산

전년동월대비 증감

매매가격지수(12월)



부동산거래현황(12월)



중소기업

해당월 수치

어음부도율(12월)

0.00%

부부도업체수(12월)

0개

신설법인수(11월)

261개

경기

11월 경북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7% 하락

11월
동행지수 전월대비
하락

✓ 동행종합지수는 96.6으로 전월대비 1.7% 하락,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차 1.7p 감소

- 구성지표 중 비농가취업자수(−1.0%),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0.2%),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2.6%), 제조업전력사용량(−2.5%), 대형마트판매액지수(불변)(−3.2%), 수출액(실질)(−2.1%), 수입액(실질)(−8.1%) 모두 감소

11월 국내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

✓ 동행종합지수는 123.1로 전월대비 0.5% 하락, 순환변동치는 101.7로 전월차 0.7p 감소

- 구성지표 중 건설기성액(2.1%) 전월대비 상승, 비농림어업취업자수(0.0%) 보합, 광공업생산지수(−1.7%), 서비스업생산지수(−0.5%), 소매판매액지수(−1.3%)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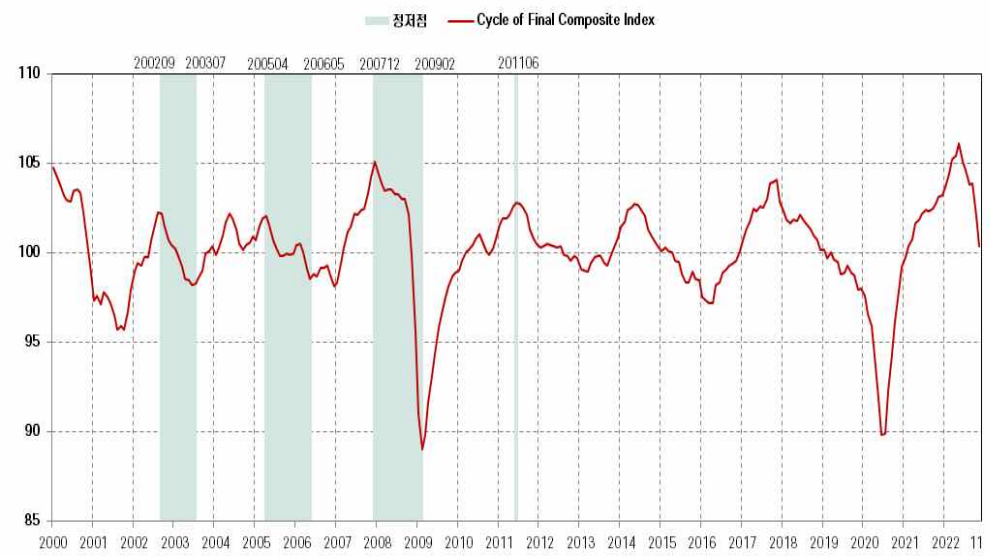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2015=100)

구 분		2022					
		06	07	08	09p	10p	11p
경북	동행종합지수	103.2	102.7	101.9	100.1	98.3	96.6
	전월대비(%)	−0.9	−0.5	−0.8	−1.8	−1.8	−1.7
	순환변동치	105.1	104.6	103.8	103.9	102.1	100.4
	전월차(p)	−1.1	−0.5	−0.8	0.1	−1.8	−1.7
전국	동행종합지수	121.4	122.2	123.1	123.4	123.7	123.1
	전월대비(%)	0.3	0.7	0.7	0.2	0.2	−0.5
	순환변동치	101.3	101.8	102.3	102.4	102.4	101.7
	전월차(p)	0.1	0.5	0.5	0.1	0.0	−0.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1월 제조업 BSI는 57, 비제조업 BSI는 78

2023년 1월
제조업 BSI,
전월대비 보합
비제조업 BSI 증가

✓ 제조업 업황BSI는 57로 전월대비 보합, 2월 업황 전망BSI는 62로 1p 증가

- 매출BSI는 60으로 전월대비 4p, 2월 전망은 66으로 2p 각각 감소
- 생산BSI는 71로 전월대비 10p, 2월 전망은 78로 6p 각각 감소
- 채산성BSI는 68로 전월대비 1p, 2월 전망은 71로 3p 각각 증가

✓ 비제조업 업황BSI는 78로 전월대비 5p, 2월 업황 전망BSI는 77로 14p 각각 증가

- 매출BSI는 86으로 전월대비 7p 감소, 2월 전망은 86으로 5p 증가
- 채산성BSI는 76으로 전월대비 5p 감소, 2월 전망은 76으로 4p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22							2023	
	06	07	08	09	10	11	12	01	02
제조업 BSI	75	67	69	65	73	68	57	**57**	–
	(90)	(71)	(66)	(72)	(70)	(73)	(66)	**(61)**	**(62)**
비제조업 BSI	74	80	78	73	79	65	73	**78**	–
	(75)	(73)	(75)	(67)	(71)	(72)	(57)	**(63)**	**(77)**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2년 12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 기업경기조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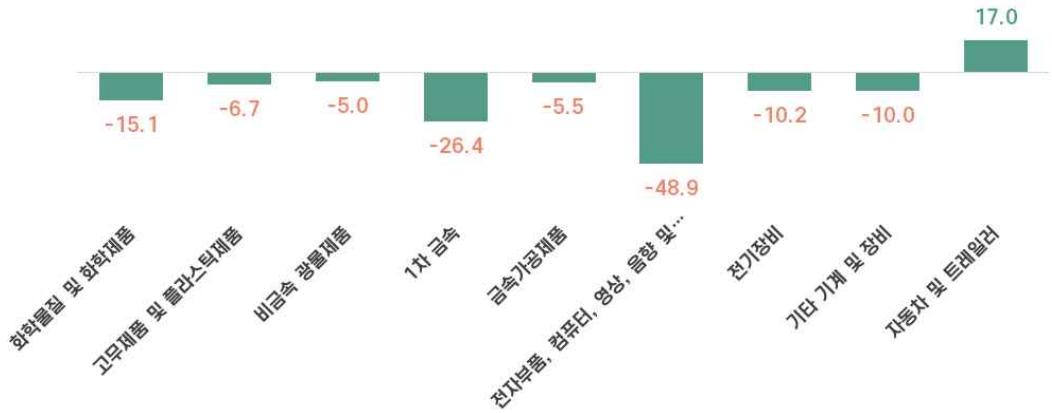
생산

12월 광공업생산지수는 75.8로 전년동월대비 17.2%, 전월대비 6.7% 각각 하락

12월
광공업 생산, 출하,
전년동월대비 하락
재고 증가

✓ 광공업생산지수는 자동차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1차금속,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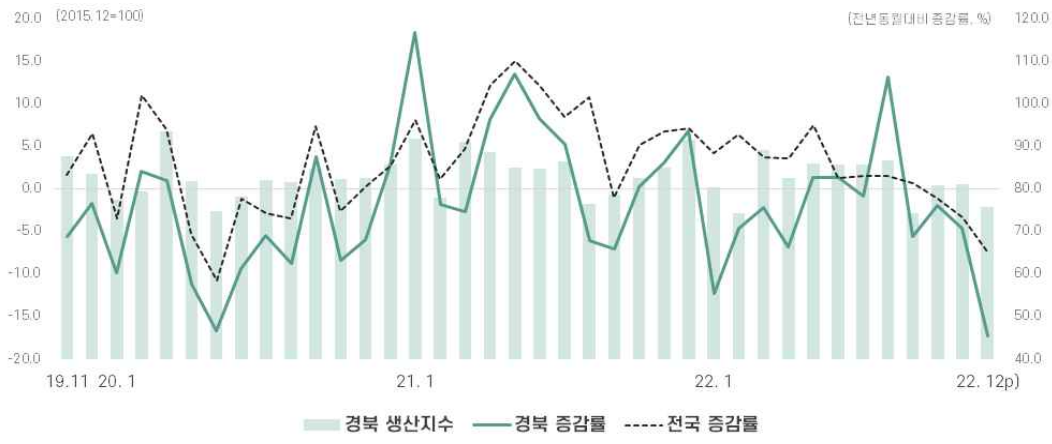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에서 자동차(17.0%)는 자동차부품에서 증가
- 전자부품(−48.9%)은 휴대용전화기, DDL(DisplayDriverLc), 휴대폰용카메라모듈 등에서 감소
- 1차금속(−26.4%)은 스테인리스강판, 중후판, 냉연강판 등에서 감소
- 화학제품(−15.1%)은 반도체용식각제, 폴리에스터섬유, 선형폴리에스터수지 등에서 감소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p	12p
85.0	85.8	85.7	86.7	74.3	80.9	81.2	75.8
(−3.7)	(1.3)	(−0.8)	(13.2)	(−5.6)	(−1.9)	(−4.6)	(−17.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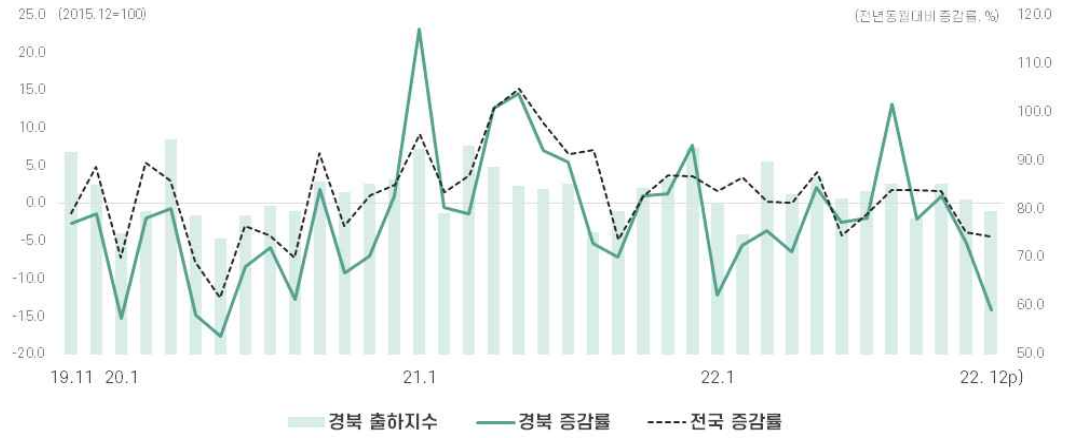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4.1%, 전월대비 4.4% 각각 하락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자동차(16.1%), 담배(26.4%), 전기업(2.4%) 등이 증가, 전자부품(−36.0%), 1차금속(−16.6%), 기계장비(−21.3%) 등이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15=100, 단위 : %)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p	12p
85.5	82.1	83.6	85.2	78.0	85.2	**81.9**	**79.6**
(4.5)	(−2.5)	(−1.9)	(13.1)	(−2.0)	(1.1)	**(−5.2)**	**(−14.1)**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공업제품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전월대비 9.4% 하락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기계장비(51.2%), 화학제품(22.2%), 고무 및 플라스틱(18.4%) 등이 증가, 1차금속(−12.3%), 전자부품(−3.8%), 전기장비(−12.8%) 등이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15=100, 단위 : %)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p	12p
120.1	129.4	128.7	137.5	125.9	132.4	**135.2**	**122.5**
(14.8)	(20.1)	(17.4)	(15.9)	(2.8)	(10.4)	**(10.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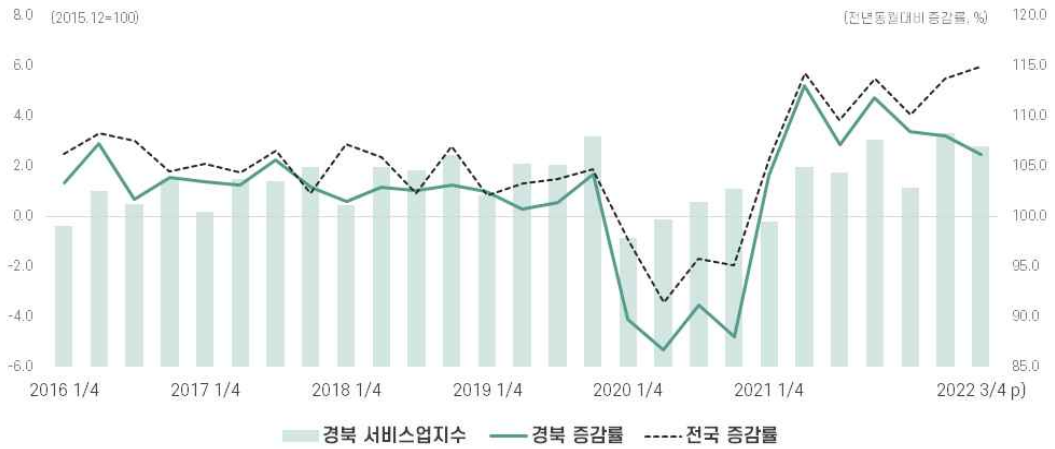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3/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5% 상승, 전분기대비 1.2% 하락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단위 : %)

2020	2021				2022		
4/4	1/4	2/4	3/4	4/4	1/4	2/4p	3/4p
102.8	99.5	104.8	104.3	107.7	102.9	**108.3**	**107.0**
(-4.8)	(1.6)	(5.1)	(2.8)	(4.8)	(3.4)	**(3.2)**	**(2.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12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8% 하락, 전월대비 10.0% 상승

12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하락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81.2로 전년동월대비 3.8% 하락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08.9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80.6으로 전년동월대비 6.1% 하락
- 전년동월에 비해 의복, 신발·가방, 화장품은 증가, 가전제품, 기타상품, 음식료품, 오락·취미·경기용품은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15=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p	12p
대형 소매점	85.8 (3.9)	80.2 (1.0)	89.1 (−9.5)	87.9 (3.3)	84.6 (−9.6)	77.9 (−11.1)	**73.8** **(−6.0)**	**81.2** **(−3.8)**
대형마트	88.0 (2.2)	78.9 (−3.2)	91.5 (−11.9)	92.7 (1.8)	85.2 (−11.8)	74.1 (−14.6)	**72.4** **(−5.0)**	**80.6** **(−6.1)**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10월 신용카드사용액은 1조 3,294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2% 상승

✓ 기타(61.6%), 숙박·음식(23.4%) 등의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금융·보험(−51.0%), 가구·가전(−23.1%)의 사용액 감소

- 종합소매(5.4%), 숙박·음식(23.4%)의 사용액 증가
- 종합소매(5.4%) 사용액 중 전년동월대비 편의점(18.5%), 백화점(8.2%), 슈퍼마켓(4.5%), 대형마트/유통전문점(0.5%)의 사용액은 증가
- 숙박·음식(23.4%) 사용액 중 숙박(19.6%), 음식점(23.6%)의 사용액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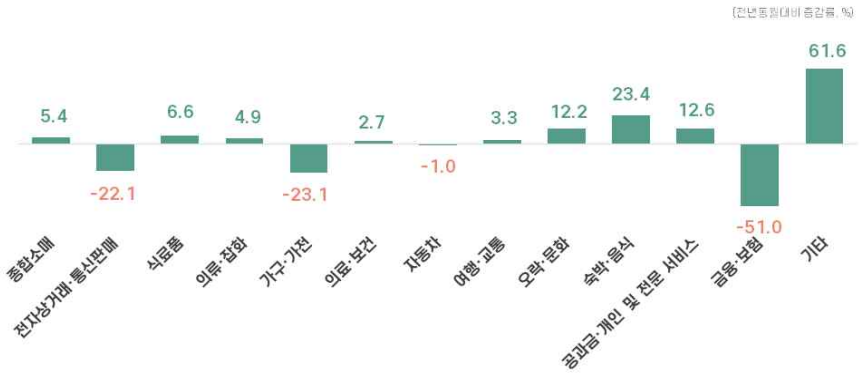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신용카드사용액

(단위 : 십억 원, %)

2022							
03	04	05	06	07	08	09	10
1,142.3	1,233.3	1,360.1	1,289.8	1,325.2	1,335.6	1,203.4	**1,329.4**
(12.9)	(22.0)	(24.9)	(22.0)	(16.4)	(19.7)	(9.4)	**(13.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별 소비유형별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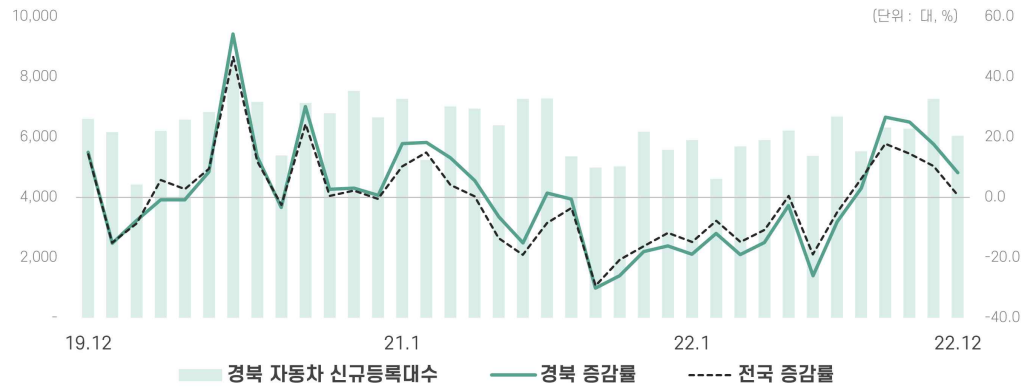
12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6,037대로 전년동월대비 8.2% 상승

- 신규등록대수는 신차 출고 적체가 일부 해소되었지만 전월대비 하락, 전년동월대비 상승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	12
74,558	5,382	6,684	5,526	6,315	6,281	7,269	**6,037**
(-6.2)	(-26.0)	(-8.1)	(3.0)	(26.6)	(25.0)	(17.6)	**(8.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20	79,482	60,412	1,948	16,404	718
2021	74,558	54,933	1,206	17,432	987
2022. 06	5,382	3,816	95	1,372	99
07	6,684	4,861	103	1,624	96
08	5,526	3,960	86	1,411	69
09	6,315	4,637	74	1,509	95
10	6,281	4,450	92	1,657	82
11	7,269	5,422	131	1,627	89
12	6,037	4,824	94	1,059	60

투자

12월 자본재수입액은 279,600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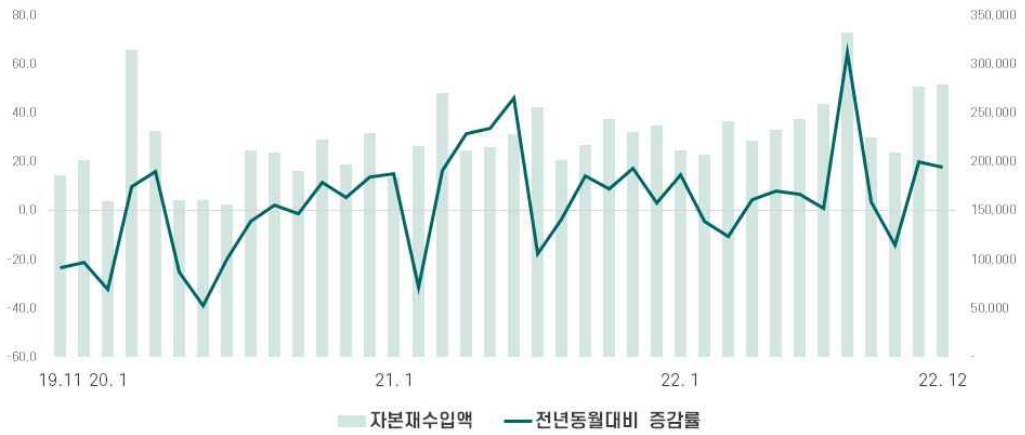
12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별로는 전기·전자기기(74.6%)는 증가한 반면, 기계류와 정밀기기(−17.7%), 수송장비(−14.2%), 기타(−1.8%)의 수입은 감소
- 전기·전자기기 중 발전기(797,833.3%)의 수입이 폭증, 컴퓨터(3,922.0%), 전자관류(447.5%)의 수입도 증가
- 수송장비는 화물자동차(−52.6%), 기타 수송기기(−41.2%), 자동차 부품(−16.2%)의 수입 감소
- 기계류와 정밀기기 중 가열 및 건조기(169.6%), 기타의 기계부분품(153.0%)의 수입은 증가했지만 광학기기(−96.6%), 금속공작기계(−56.4%), 사무기기(−42.0%), 제분 및 제품기계(−40.9%)의 수입이 감소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22							
05	06	07	08	09	10	11	12
232,375	244,452	259,167	332,893	225,384	209,400	277,413	**279,600**
(8.1)	(7.0)	(1.2)	(64.8)	(3.8)	(−14.0)	(20.0)	**(17.9)**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12월 건축물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상승, 건축물착공면적 하락

12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7.0% 상승한 1,062,920㎡

- 용도별로 주거용, 공업용은 증가, 상업용은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139.1% 증가한 753,830㎡, 상업용은 49.7% 감소한 99,614㎡, 공업용은 2.0% 증가한 92,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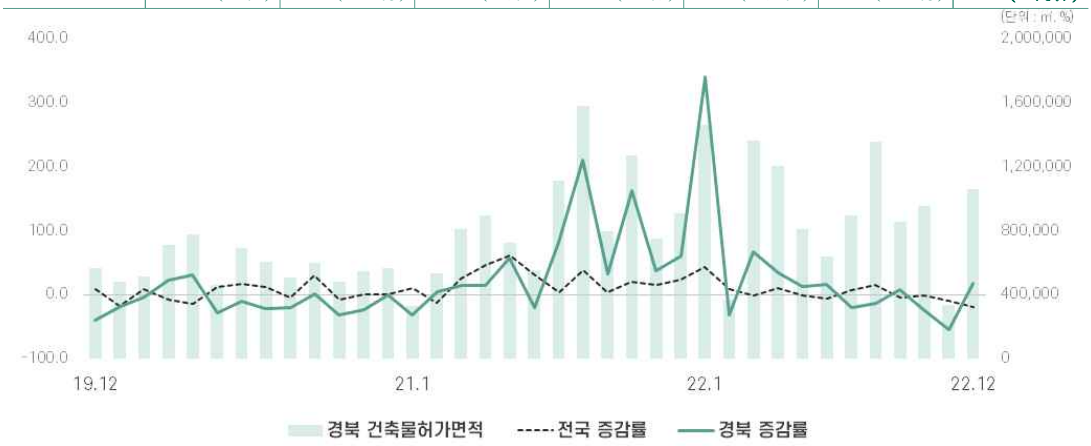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79.7% 하락한 264,052㎡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모두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96.3% 감소한 33,537㎡, 상업용은 62.4% 감소한 47,899㎡, 공업용은 전년동월대비 58.1% 감소한 40,889㎡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분	2022						
	06	07	08	09	10	11	12
건축허가면적	639,980 (15.6)	893,707 (−19.5)	1,360,089 (−13.9)	854,544 (7.5)	954,549 (−24.9)	337,317 (−55.1)	**1,062,920** **(17.0)**
건축착공면적	935,881 (14.9)	563,404 (−15.8)	427,408 (−7.4)	689,296 (−0.7)	343,817 (−73.3)	650,782 (−39.8)	**264,052**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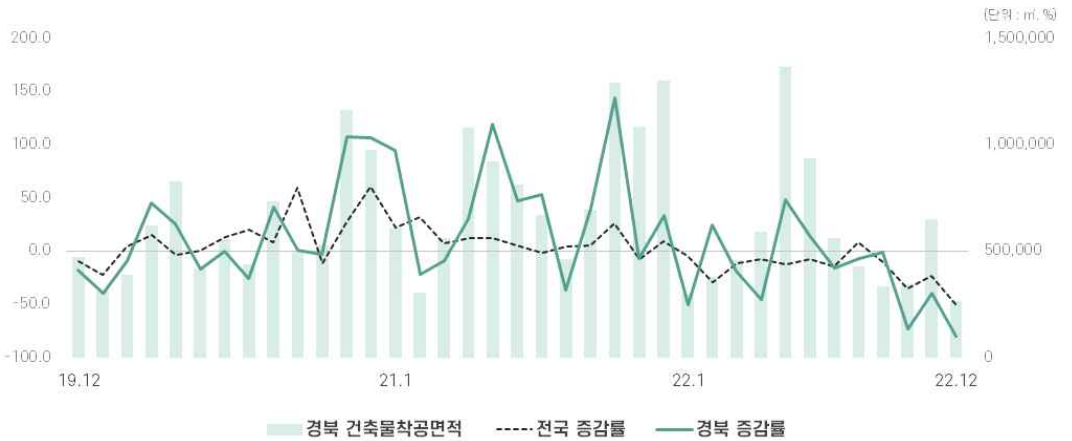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건설수주액은 1,396,030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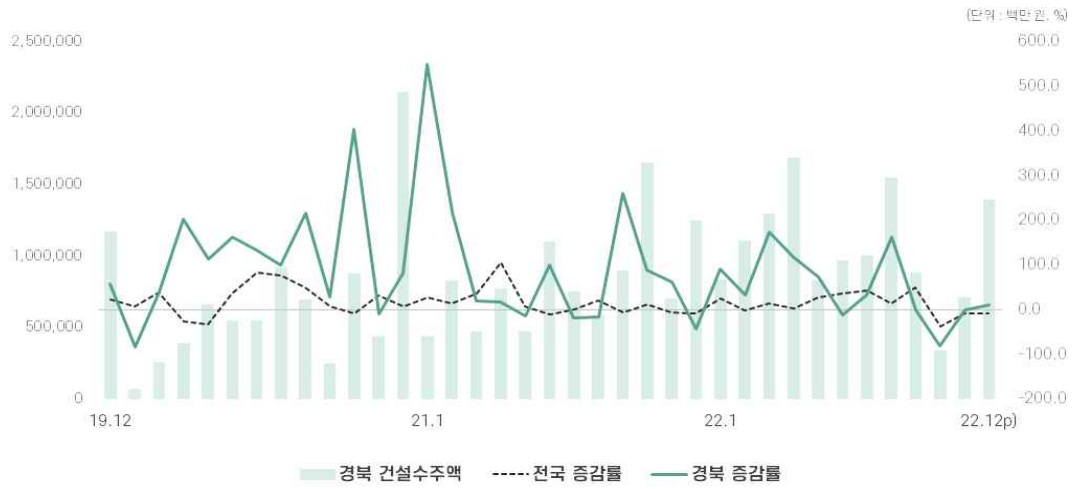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 증가는 신규주택, 공장·창고, 기계설치 등의 수주 증가 영향

- (공종별) 건축부문 978,506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5.3% 상승, 토목부문 417,524백만 원으로 32.4% 하락
- (발주자별) 공공부문 519,826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4%, 민간부문 876,162백만 원으로 0.5% 각각 상승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p	12p
9,943,926	969,234	1,003,529	1,547,440	886,930	338,271	**709,061**	**1,396,030**
(27.2)	(−12.2)	(32.8)	(163.4)	(−1.3)	(−79.5)	**(0.6)**	**(11.9)**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12월 수출액 및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12월 무역수지
2,395백만 달러 흑자

✓ 수출액은 3,847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6%, 수입액은 1,452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8% 각각 하락, 무역수지는 2,395백만 달러 흑자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철강판(14.4%), 무선통신기기(−47.4%), 정밀화학원료(160.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7.9%) 등[1)]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정밀화학원료(88.0%), 석탄(−38.3%), 철광(−61.3%), 아연광(−4.4%) 등
-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26.2%), 미국(−33.0%), 일본(14.4%), 베트남(−31.0%) 순

✓ 포항시 2022년 12월 화물수송은 3,803,098톤(R/T)으로 외항 3,230,568톤(R/T)

교역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2						
	06	07	08	09	10p	11p	12p
수출액	3,455 (3.4)	3,469 (−1.4)	3,849 (2.4)	3,700 (−3.4)	**3,849** **(−2.4)**	**3,809** **(−10.1)**	**3,847** **(−11.6)**
수입액	1,894 (10.9)	2,096 (36.1)	1,991 (17.3)	1,617 (−5.2)	**1,491** **(−14.7)**	**1,553** **(−19.1)**	**1,452** **(−28.8)**
무역수지	1,560	1,373	1,859	2,083	**2,358**	**2,257**	**2,395**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12월 경제활동인구는 146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만 1천 명(2.2%)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85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 하락, 전월대비 5.4% 상승

12월 고용률 60.9%로 전국평균 하회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	12
1,457	1,530	1,517	1,513	1,509	1,528	1,514	**1,469**
(−1.4)	(4.3)	(2.9)	(4.1)	(2.8)	(3.6)	(3.7)	**(2.2)**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는 141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9천 명(1.3%)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2만 3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 6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9천 명) 증가, 제조업(−2만 4천 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4천 명), 건설업(−2천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9대 광역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1.3%)은 제주(4.9%), 경기(2.7%), 전남(2.6%), 경남(2.3%), 충남(1.4%)에 이은 6번째 상승폭 기록

✓ 취업자 중 제조업은 27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8%,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1만 5천 명으로 1.8% 각각 하락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	12
1,410	1,501	1,489	1,491	1,476	1,493	1,484	**1,416**
(−0.6)	(5.6)	(3.5)	(4.1)	(2.0)	(3.0)	(3.3)	**(1.3)**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고용률은 60.9%로 전국평균 하회, 실업률은 3.6%로 전국평균 상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증가한 60.9%로 전국평균(61.3%) 하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7.8%로 전국평균 68.5%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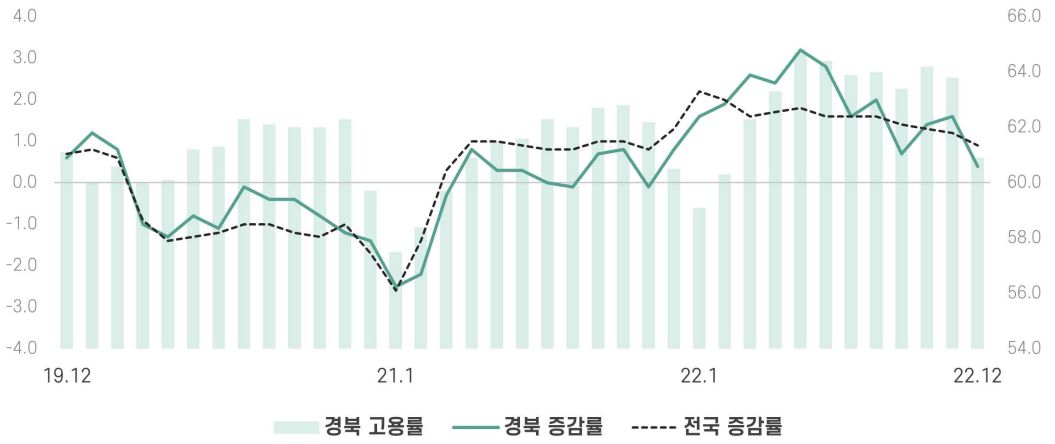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증가한 3.6%로 전국평균(3.0%)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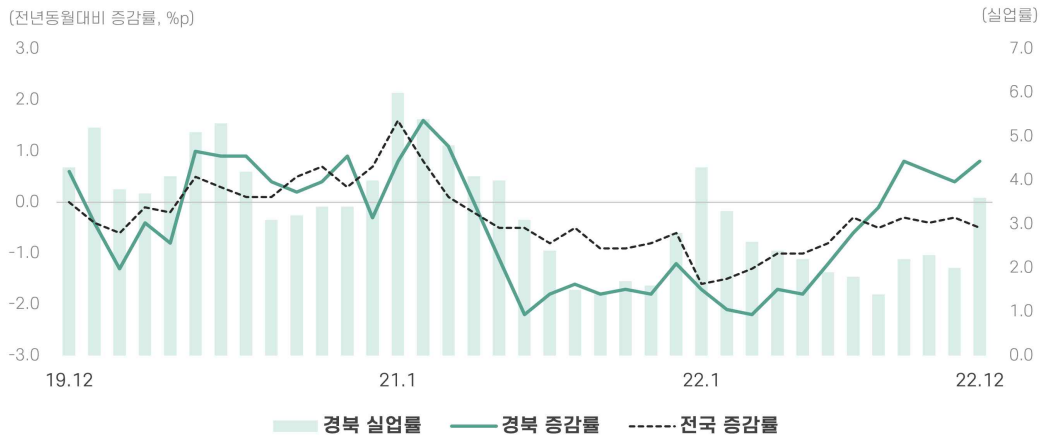
- 실업자는 약 5만 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 명 증가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 %p)

구분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	12
고용률	61.0 (−0.1)	64.4 (2.8)	63.9 (1.6)	64.0 (2.0)	63.4 (0.7)	64.2 (1.4)	63.8 (1.6)	**60.9** **(0.4)**
실업률	3.2 (−0.8)	1.9 (−1.2)	1.8 (−0.6)	1.4 (−0.1)	2.2 (0.8)	2.3 (0.6)	2.0 (0.4)	**3.6** **(0.8)**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 인구) * 10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수,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한 89만 9천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6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수(2.9%) 증가, 임시근로자수(−3.9%), 일용근로자수(−9.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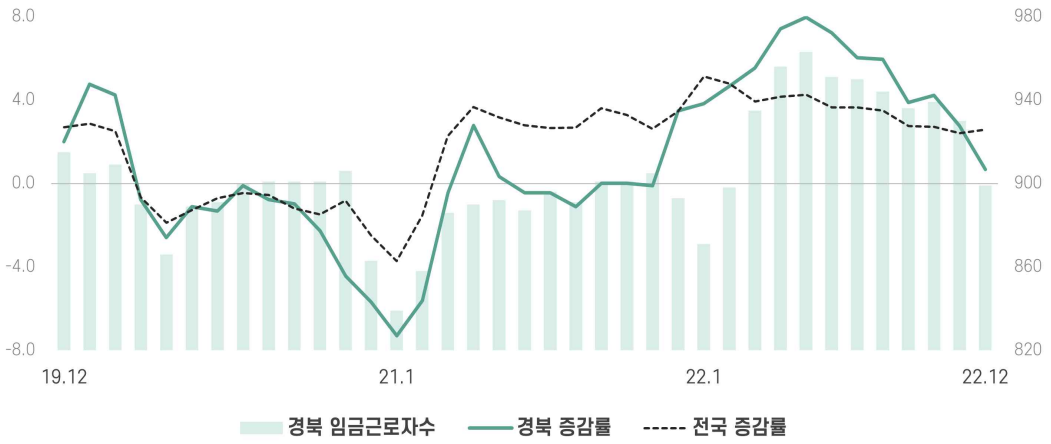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한 42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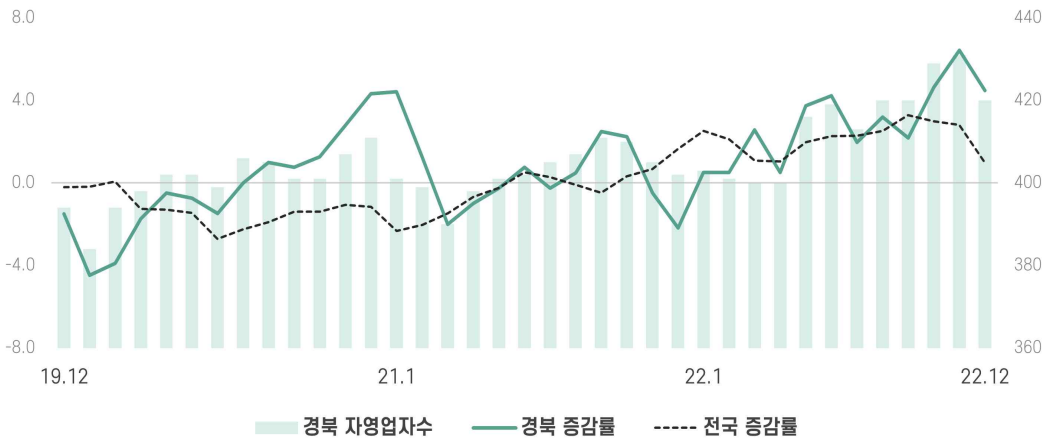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 8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4.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2.4%) 모두 증가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	12
임금근로자	887	951	950	944	936	939	930	**899**
	(−0.8)	(7.3)	(6.0)	(6.0)	(3.8)	(4.3)	(2.7)	**(0.7)**
자영업자	402	419	413	420	420	429	431	**420**
	(0.4)	(4.1)	(2.0)	(3.1)	(2.4)	(4.6)	(6.4)	**(4.4)**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물가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5.4%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10.91로 전년동월대비 5.4%,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 전국평균(5.2%) 대비 상회

-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2%), 주택·수도·전기·연료(1.2%), 기타 상품·서비스(1.7%), 가정용품·가사서비스(1.6%), 보건(0.9%), 음식·숙박(0.4%), 오락·문화(0.8%), 의류·신발(0.3%), 교육(0.1%)은 상승, 통신은 보합, 주류·담배(−0.1%), 교통(−1.5%)은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112.20으로 전년동월대비 6.0%, 전월대비 0.7% 각각 상승

- 식품지수는 115.43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식품이외는 110.10으로 5.4% 각각 상승

물가지수

(2020=100, 단위 : %)

구분	2021	2022						2023
	연간	07	08	09	10	11	12	01
소비자 물가지수	102.74 (2.7)	110.11 (7.4)	109.69 (6.5)	110.02 (6.3)	110.34 (6.4)	110.28 (5.7)	110.24 (5.3)	**110.91 (5.4)**
생활 물가지수	103.47 (3.5)	112.17 (8.8)	111.05 (7.1)	111.68 (6.6)	111.99 (6.7)	111.83 (5.8)	111.39 (5.8)	**112.20 (6.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11월 가계대출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전월대비 0.1% 각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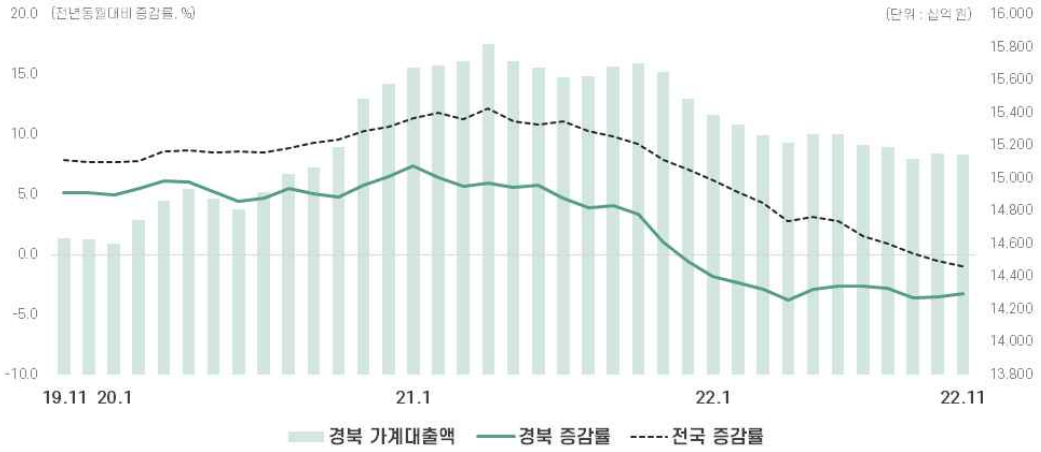
11월 가계대출 전년동월대비 하락, 주택담보대출 상승

✓ 총 대출액 50조 원 중 가계대출은 30.1% 차지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	11
15,673	15,272	15,272	15,208	15,189	15,121	15,155	**15,147**
(4.4)	(−2.8)	(−2.6)	(−2.6)	(−2.8)	(−3.6)	(−3.5)	**(−3.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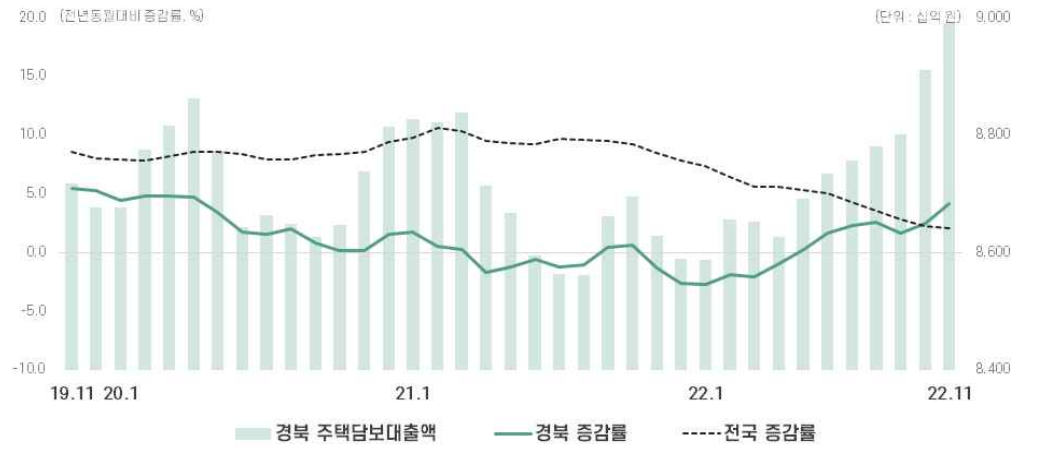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은 9.0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 0.9% 각각 상승

✓ 총 가계대출 15.1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59.4%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	11
8,680	8,691	8,734	8,757	8,782	8,801	8,912	**8,990**
(−0.5)	(0.3)	(1.6)	(2.3)	(2.6)	(1.6)	(2.5)	**(4.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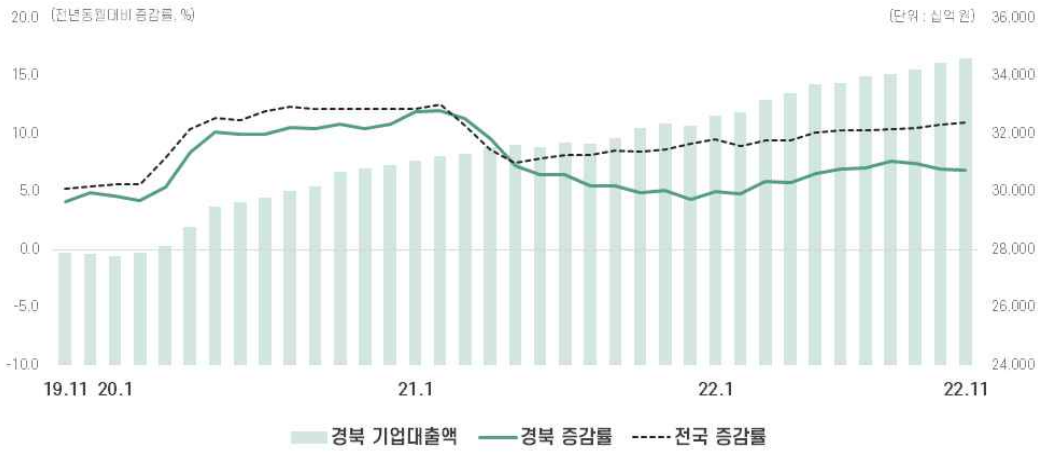
기업대출은 34.6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9%, 전월대비 0.5% 각각 상승

✓ 총 대출액 50조 원 중 기업대출은 68.8% 차지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1	2022						
연간	05	06	07	08	09	10	11
31,702	33,707	33,764	33,972	34,065	34,225	34,447	**34,611**
(7.4)	(6.6)	(7.0)	(7.1)	(7.6)	(7.5)	(7.0)	**(6.9)**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12월 아파트매매지수 전년동월대비 2.8% 하락

✓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8%, 전월대비 0.8% 각각 하락한 101.6

- 경산(−4.1%), 구미(−3.7%), 포항(−1.6%)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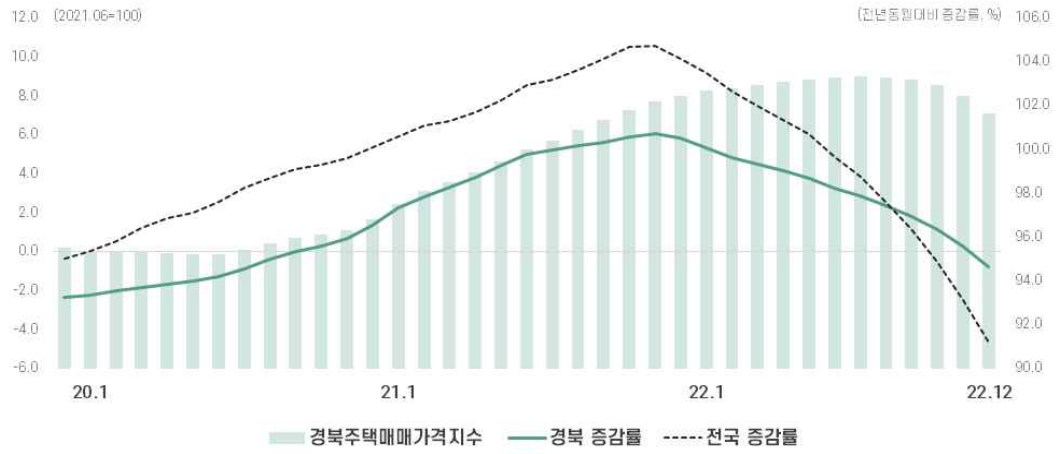
✓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6%, 전월대비 0.8% 각각 하락한 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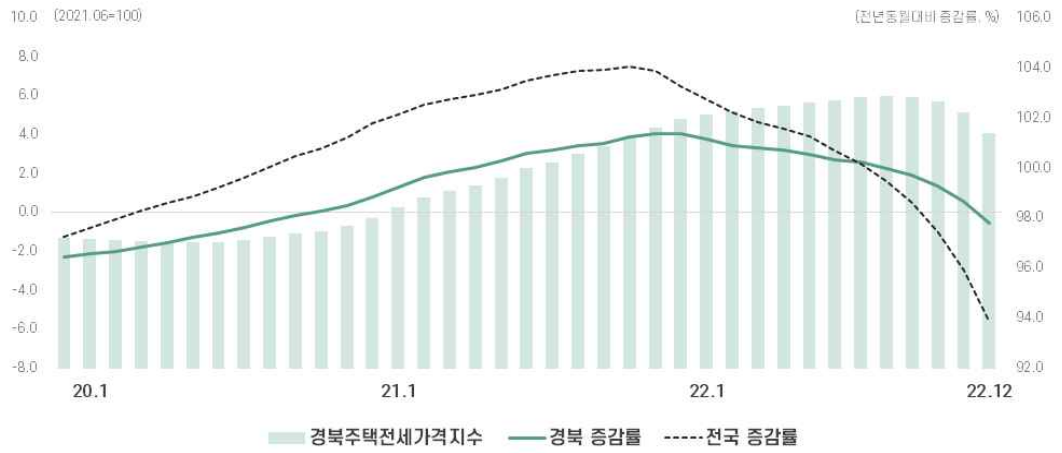
- 경산(−3.1%), 구미(−2.9%), 포항(−0.1%) 모두 하락

주택가격지수

(2021.06=100, 단위 : %)

구분	2022							
	05	06	07	08	09	10	11	12
매매	103.2 (3.8)	103.3 (3.3)	103.3 (2.9)	103.3 (2.4)	103.2 (1.8)	102.9 (1.1)	102.5 (0.3)	**101.6** **(−0.8)**
전세	102.6 3.0	102.7 2.7	102.8 (2.6)	102.9 (2.3)	102.8 (1.9)	102.7 (1.4)	102.2 (0.6)	**101.4** **(−0.6)**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및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하락

✓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2.8%, 전월대비 1.6% 각각 하락한 101.0

- 안동(1.6%)은 상승, 경산(−5.8%), 구미(−5.5%), 포항(−3.1%)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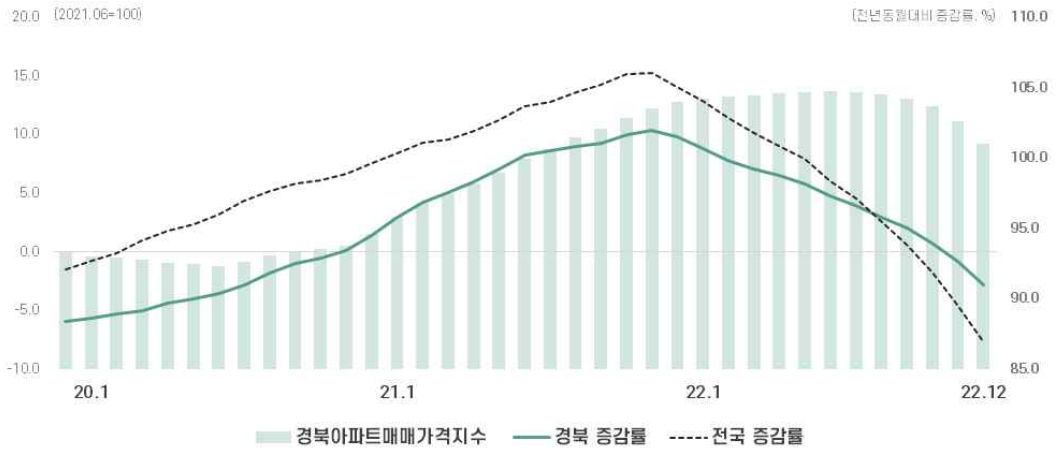
✓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1.4%, 전월대비 1.7% 각각 하락한 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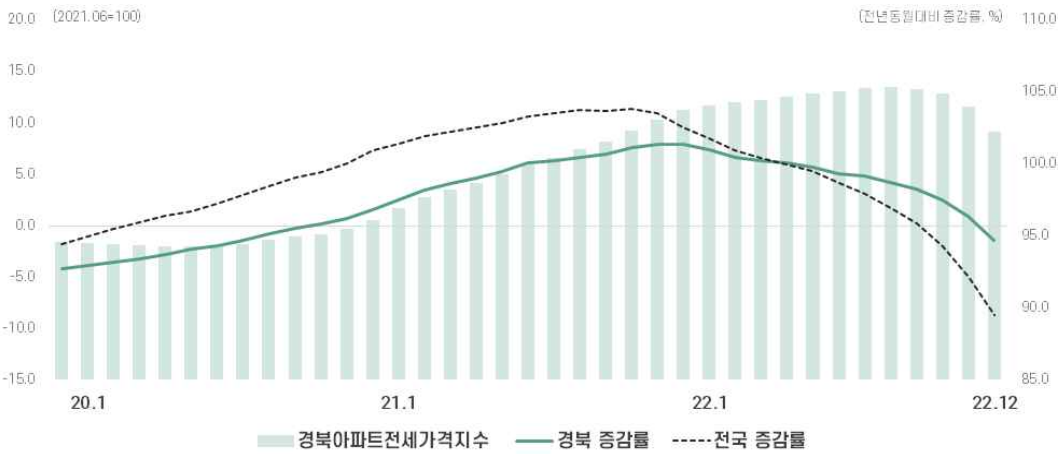
- 안동(2.4%)은 상승, 경산(−4.3%), 구미(−4.2%), 포항(−0.4%)은 하락

아파트가격지수

(2021.06=100, 단위 : %)

구분	2022							
	05	06	07	08	09	10	11	12
매매	104.7	104.8	104.7	104.5	104.2	103.7	102.7	**101.0**
	5.8	4.8	(4.0)	(3.0)	(2.1)	(0.8)	(−0.8)	**(−2.8)**
전세	104.9	105.1	105.3	105.3	105.2	104.9	104.0	**102.3**
	5.7	5.1	(4.8)	(4.2)	(3.6)	(2.5)	(0.9)	**(−1.4)**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군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지수 증감률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세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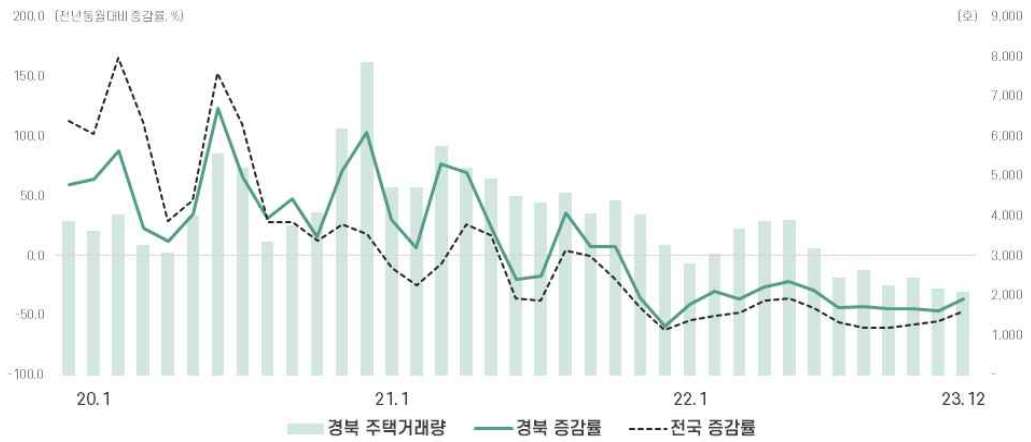
✓ 주택매매거래량은 2,100호로 전년동월대비 35.9% 감소, 전국도 감소(−46.8%)

- 안동(−47.0%), 경산(−45.5%), 포항(−41.7%), 구미(−38.7%)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감소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21	2022						
연간	06	07	08	09	10	11	12
54,157	3,203	2,454	2,644	2,271	2,440	2,174	**2,100**
(0.0)	(−28.7)	(−43.3)	(−42.2)	(−44.2)	(−44.6)	(−46.0)	**(−35.9)**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미분양주택은 7,674호로 전년동월대비 75.0%, 전월대비 0.1% 각각 증가

✓ 미분양 주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3,410호), 경주(1,474호), 경산(737호), 김천시(555호) 순

중소기업

12월 어음부도율은 0.00%

12월 어음부도율 전국대비 하회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04%p, 전월대비 0.31%p 각각 감소

- 전국 어음부도율은 0.11%이고, 경남(0.88%), 경기(0.20%), 충남(0.19%), 충북(0.07%), 전북(0.04%) 순

✓ 부도업체수는 전년동월대비 0개, 전월대비 1개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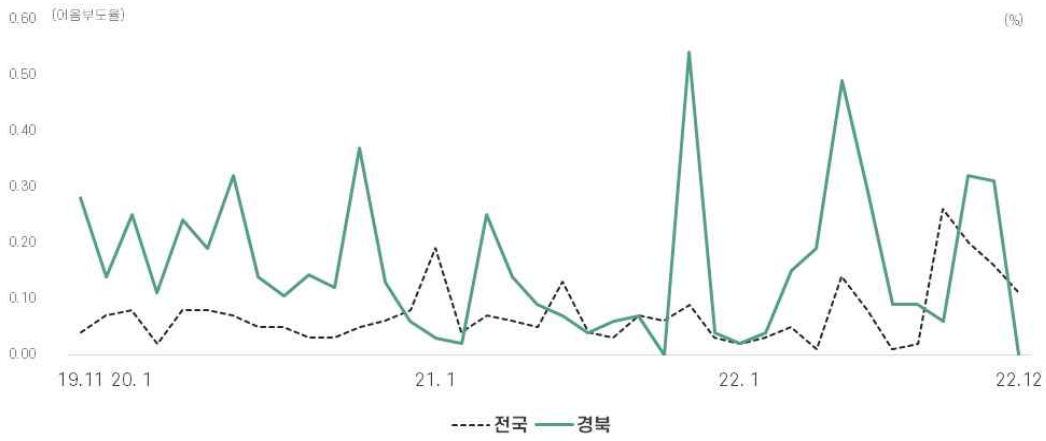
- 총 부도금액은 1.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9억 원 감소

11월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66개 감소, 전월대비 6개 증가한 261개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22							
	05	06	07	08	09	10	11	12
어음부도율	0.49	0.30	0.09	0.09	0.06	0.32	0.31	**0.00**
부도업체수	2	0	1	0	0	3	1	**0**
전년동월대비	1	-1	1	0	0	3	-1	**-1**
신설법인수	303	300	307	308	259	255	**261**	-
전년동월대비	23	-76	9	5	-19	-67	**-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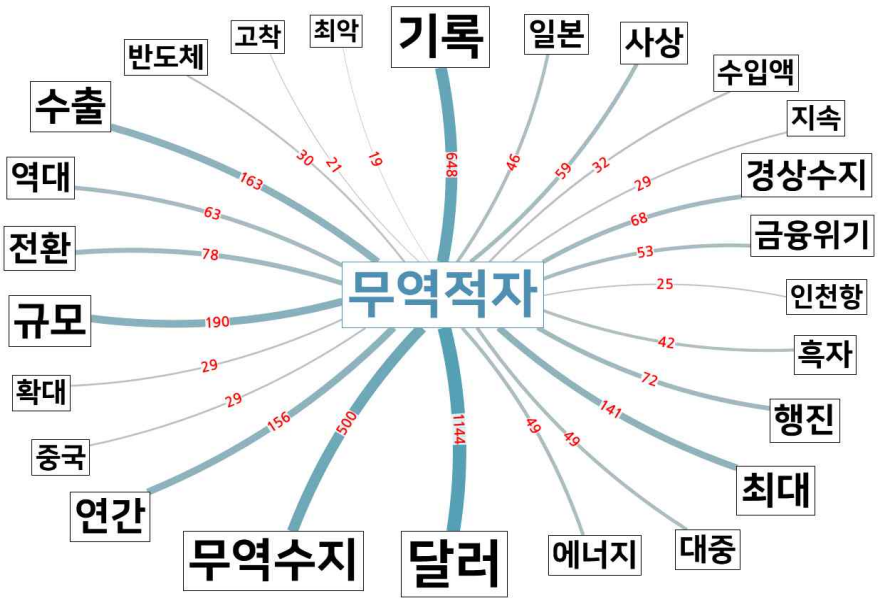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어음부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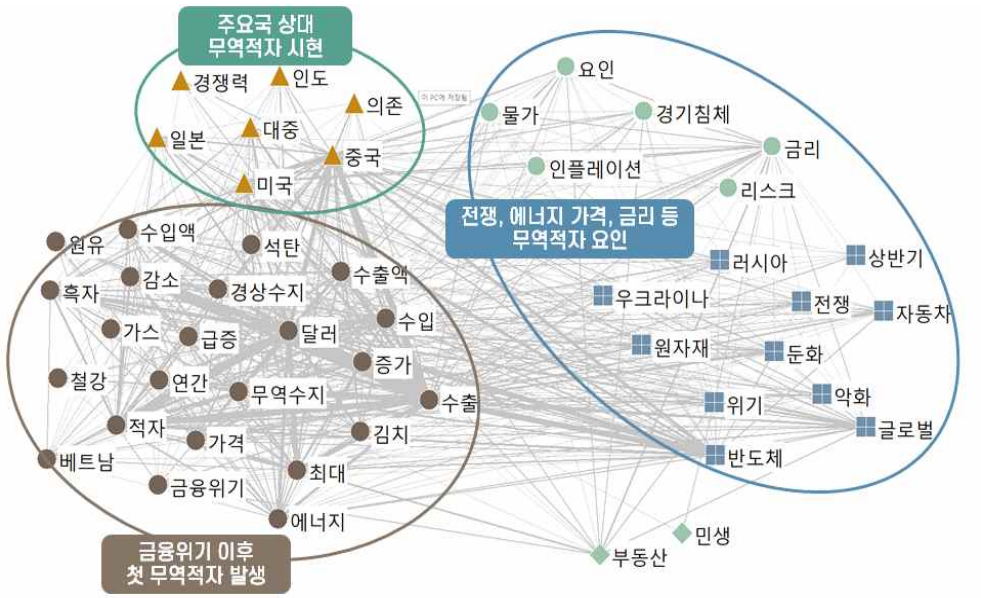
: 일정 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 교환금액 중에서 잔고 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경제분야 키워드 BIG DATA

무역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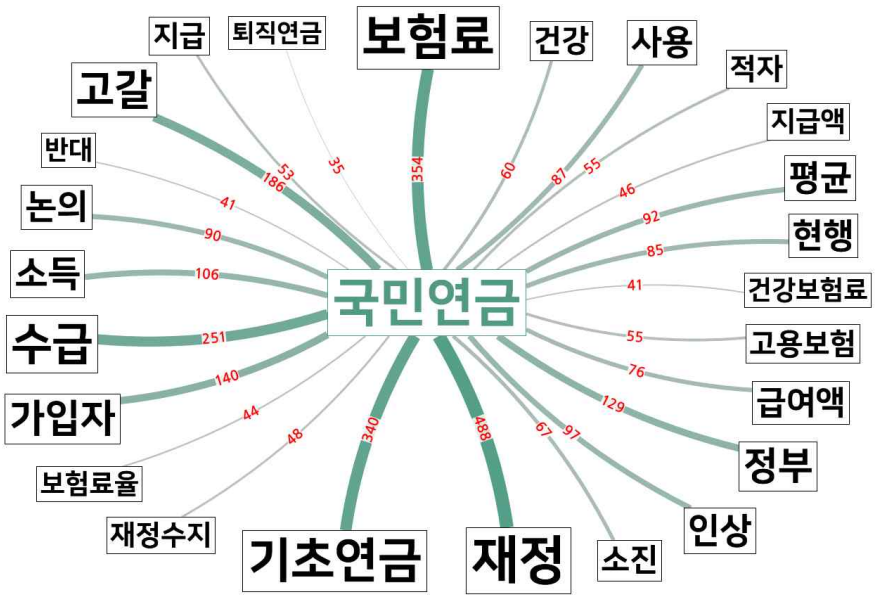


주요 단어 : 달러(1,144), 무역수지(648), 최대(141), 전환(78), 금융위기(53) 등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 기록에 관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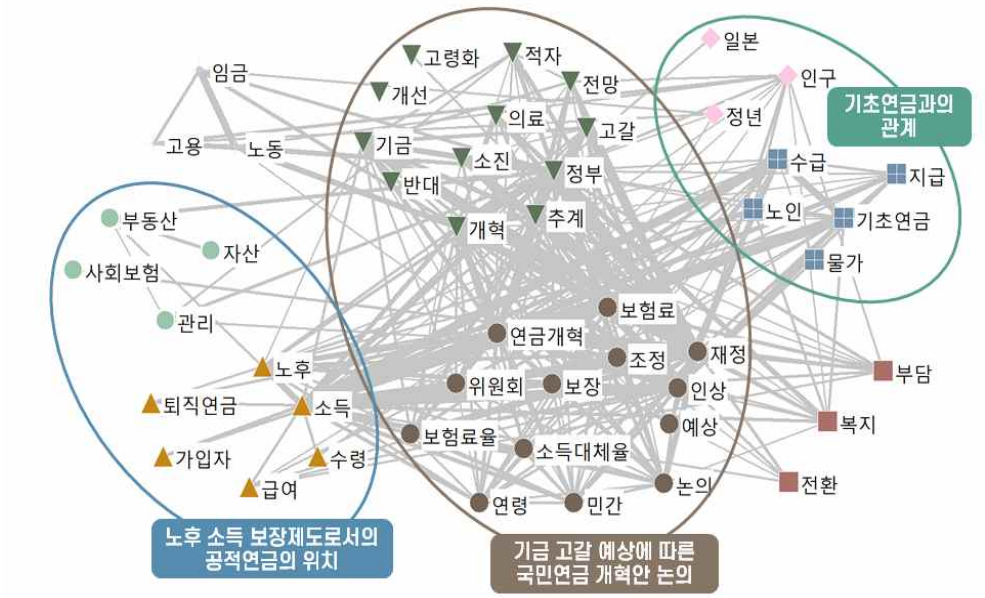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에도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무역적자 시현과 글로벌 경제 침체 가속화에 따른 무역적자 지속 전망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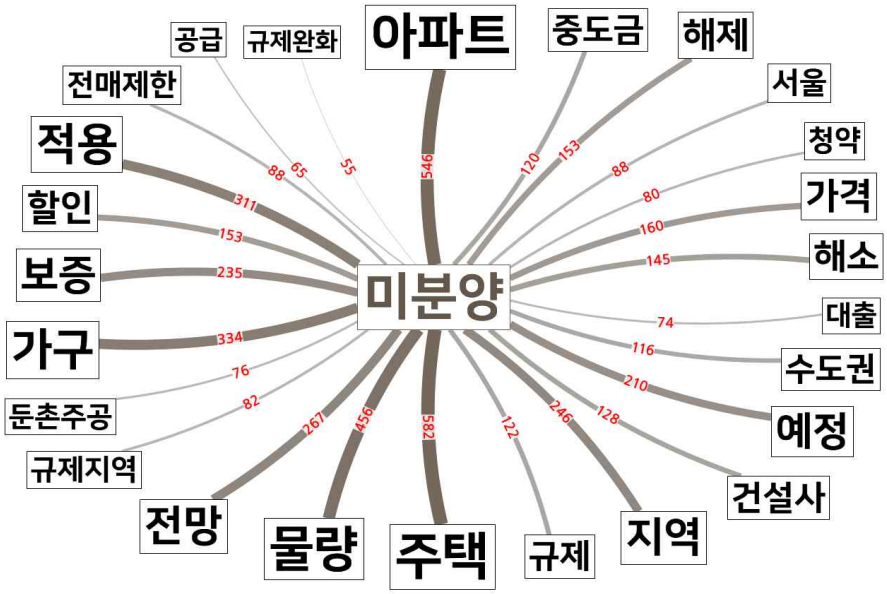


주요 단어 : 재정(488), 보험료(354), 기초연금(340), 고갈(186), 논의(90) 등 기금 고갈 시점에 따른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구조개혁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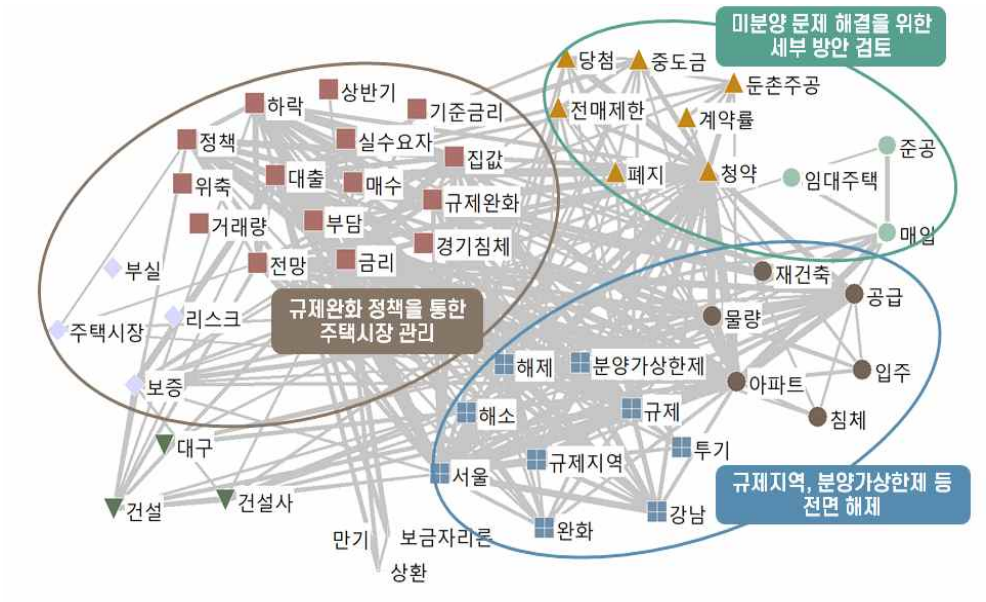


주요 주제 : 기금 고갈 시점이 가속화됨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수급개시 연령 연장 등과 같은 연금제도 개혁안 논의에 관한 내용

미분양



주요 단어 : 주택(582), 물량(456), 지역(246), 건설사(128), 중도금(120) 등 경기침체 및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아파트 미분양 증가와 그에 따른 주택시장 경색 우려에 관한 내용



주요 주제 :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전면 해제와 추가적인 세부 방안(임대주택 매입,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논의

※ 분석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25일
(상단)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하단)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BIG DATA

01 무역적자 : 무역수지 적자와 원인

☑ 연관 검색어 : 무역수지, 에너지, 잠재성장률, 리오프닝, 인플레이션

현황

○ 2022년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로 연간 최대 기록(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132억 6천만 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처음
- 적자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206억 2천만 달러)의 2배를 넘는 역대 최대치
- 무역수지가 9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

○ 수출액은 6천 839억 달러로 2021년 대비 6.1% 증가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

- 세계 수출 순위는 20221년 7위에서 2022년 6위(1~9월기준)로 한 단계 상승
- 반도체(1,292억 3천만 달러), 석유제품(630억2천만 달러), 자동차(541억 달러), 이차전지(99억 9천만 달러) 등의 품목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 시스템반도체(506억 8천만 달러), 전기차(98억 3천만 달러), 유기발광다이오드(149억 달러) 수출은 최고 실적 경신과 함께 각각 상위품목 내 비중도 동시에 확대하며 수출산업의 고부가화 경향
- 아세안과 미국, EU 수출은 2021년 대비 각각 14.8%, 14.5%, 7.1% 증가
- 대표 신흥시장인 인도 수출(188억 8천만 달러)도 21.0% 급증해 사상 최대
- 대미 수출액(1,098억 2천만 달러)은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1천억 달러 돌파

○ 수입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18.9% 늘어난 7,312억 달러로 집계

- 이 중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의 수입액은 전체의 26.1%인 1,908억 달러로 무역적자 발생의 핵심 요인
- 2022년 가스와 석탄 수입액은 각각 567억 달러, 283억 달러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기록
- 원유 수입액도 1,058억 달러로 기존 최대치인 2012년 1,083억 달러에 육박

영향

○ 무역 적자 흐름은 2023년도에도 이어질 전망

-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에 그치고, 수출은 전년보다 4.5% 감소 전망
- 2023년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 감소한 6,624억 달러, 수입액은 8% 줄어든 6,762억 달러로 무역 적자가 138억 달러 전망(한국무역협회)

○ 2023년 초부터 에너지 수입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

- 1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탄(40.5%), 가스(14.1%), 원유(11.3%) 수입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관세청)
- 에너지 수입 여파로 무역적자가 102억 6,300만 달러(약 12조 7,000억 원)로 2023년 올해 들어 20일 만에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21.6% 기록
-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포기와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연초 원유 시세부터 상승,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여행, 경제 활동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원유 가격이 상승할 전망

-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줄었던 석탄 사용량도 각국 화력발전소 운영 확대, 중국경기 회복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당분간 오를 것으로 예측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 수출업체 수지 악화, 에너지원 상승분을 제품 원가 반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예상

02 미분양 : 미분양 급증에 따른 지역 경기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

☑ 연관 검색어 : 풍선효과, 미분양, 거래절벽, PF빚보증, 이원화된 세제 대책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 최근 주택시장 삼중고 발생

- 전국적인 아파트 거래 절벽, 미분양 증가, 입주 물량의 3중고 현상 발생으로 최근 지방주택 시장 어려움 직면, 또한 폐업하는 건설사가 증가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업 폐업 기업은 2022년 11월 기준 226개, 2023년 12월 401개, 2023년 1월 말에는 폐업 기업이 480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23년 1.3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사라지면서 청약률과 계약률 모두 하락하고 지방의 투자심리 위축
- 아파트 거래 감소로 집값이 수직 낙하하고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 2023년 입주 물량 확대까지 맞물린 상황

○ 2008년 글로벌 금융시기와 유사한 미분양 사태 발생

- 전국적으로 미분양 공동주택이 5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4만7천271가구로 9월(4만1천604가구)보다 13.5%(5천613가구) 증가. 2022년 1월 말 미분양 물량이 2만1천727가구였던 것을 고려할 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 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모두 3만2천173건으로 2021년 10월(7만5천290건)보다 57.3% 감소. 수도권, 지방 모두 비슷한 추세

-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파격적 할인 마케팅 재현 조짐 발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이 속출하자 건설사 등이 고비를 넘기려 파격적 혜택을 약속했던 모습이 최근 재현될 조짐

대구경북 지역 부동산시장 거래절벽으로 시장을 둘러싼 불안감 증대

○ 2022년 10월 기준 대구 아파트 미분양 전국 최다

- 국토교통부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매매 대구 1,037건, 경북 2,440건, 대구 아파트 미분양은 1만 가구로 '전국 최다'이며, 그 다음이 경북 순
- 2021년보다 거래량이 40% 이상 감소하여, 아파트 관련 인테리어업, 중개업, 이사업 등 아파트 전후방 사업체들이 직접적 타격을 받고, 주변 상권도 어려운 상황
- 부동산 연관 산업까지 침체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상황상 단기간에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22년 11월말 현재 대구경북 미분양주택 19,367호(전국의 33.4%)

-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이 각각 870호, 1,298호 증가, 공사완료 후 미분양주택[2]은 14호 감소, 전월대비 미분양 주택은 2,168호 증가
- 2021년 1월 이후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8월 1,198호(대구 238, 경북 960) → 9월 1,180호(대구 234, 경북 946) → 10월 1,153호(대구 233, 경북 920) → 11월 1,139호(대구 233, 경북 906)

대구경북지역 미분양주택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최근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 동향”, 대구 2023-2호(2023년 1월 5일)

대구경북지역 미분양주택 현황

구분	2021				2022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10월(A)	11월(B)	(B-A)
■ 대구경북	2,641	2,969	3,588	6,363	13,091	11,541	17,199	19,367	2,168
대 구	153	1,017	2,093	1,977	6,572	6,718	10,830	11,700	870
경 북	2,488	1,952	1,495	4,386	6,519	4,823	6,369	7,667	1,298
■ 전 국	15,270	16,289	13,842	17,710	27,974	27,910	47,217	58,027	10,810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최근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 동향”, 대구 2023-2호(2023년 1월 5일)

미분양 증가 등 금융시장 경색으로 국내 건설사 어려움 직면

○ 최근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건설회사 보증 문제 대두

- 국내 건설사들의 PF빚보증(지급보증)[3] 증대로 어려움에 직면

※ 롯데건설, 태영건설 등 국내 유수 건설사들이 부동산 호황 속에서 위험성을 간과하고 사모 시장에서 고리(13~15%)로 자금을 조달하고 '보증'을 서면서 금융경색기에 어려움 직면

- 아파트 분양만 양호하면 자금 유입의 불확실성은 없지만, 최근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4]로 많은 건설사가 자금 보충 약정 PF채무로 어려움에 직면

※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건설, 분양 업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 확산 중이며, 건설업이 지역 산업의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2023년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강원랜드 사태는 지역 건설사의 보증에 연쇄적 어려움으로 작용

- 대형건설사인 (주)롯데와 (주)태영은 금융시장 경색으로 사업 중간 유동화에 문제가 생기고, 향후 미분양 등으로 채권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도 커지면서, 지역 소규모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 건설사는 아파트가 분양까지 가기도 전에 ‘보증’으로 어려움 직면
- 최근 잇따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고, 일부 사업장은 사업 무산 우려도 커졌으며, 시행사가 PF 대출을 못 갚아 건설사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작용

3)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 보통 사업자가 금융권에 자금을 대출받거나 보증을 받을 때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개념이 적용

4)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2022년 10월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사태(네이버 지식백과)

정책방향

○ (단기 정책)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검토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시장 불황, 미분양이 단기간에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되, 민간 건설사 실패를 공공이 떠안는다는 논란 불식 필요

※ (국토교통부)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8,000여 세대로 전월에 비해 22.9%(1만 810세대) 증가. 이중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 미분양 물량의 12.3%인 7,110세대임

주택시장 경착륙 신호, 경제위기 촉발 위험에 대비한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집중규제 완화 필요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2022년 11월 확정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2021년 10월 고점 대비 누적 하락폭은 21%,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직후 하락폭인 15%를 넘는 수준임

○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지방 수요 회복 대책 마련

- 강력했던 수도권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지방부동산 매입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음
- 수도권 주민의 지역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시 추가 세제 혜택, 지방주택 매입시 주택수 산정 제외 등의 추가 시장 안정화 대책 필요
- 전 정부의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자산 여력이 있어 투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구매 수요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데, 이의 완화 필요

○ 각종 세제 대책 필요(수도권과 지방 간 이원화된 세제 대책 마련)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지역 해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방안 마련,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중과 완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고민
- 주택시장의 불안한 상황이 금융시장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취약한 전세시장의 금융 경색, 분양시장의 붕괴 등의 여파를 줄여야 할 것
- 아파트 가격변수 하락의 강도와 지속성 완화를 위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하락 폭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수도권은 주택 거래의 안정적 유지 지원을, 지방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정책 마련 안간힘

○ 정부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미분양 완화 부동산 정책 필요

- 국가(지자체)가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게 적극적인 저금리 주택 대출을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에게 저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수립
- 개발사에 건설자원 및 기술, 공사계획,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마련

○ 수록 내용 및 경북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053-770-50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총괄

- (책임연구자) 임규채 경제산업연구실장
- (참여연구진) 김용현 선임연구위원, 박민규 연구위원, 이승아 전문위원, 박효찬 연구원, 정혜경 연구원

○ 매월 발표되는 경북경제동향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